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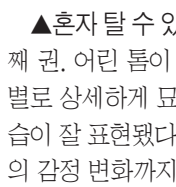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민수 유괴되다=아동문학작가 고정옥씨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유괴에 대해 다뤘다. 낯선 사람에게 유괴되었다가 침착하게 대처해 유괴범의 손을 잡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용감한 민수의 이야기이다. 유괴를 예방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 유괴가 일어났을 때 부모님의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교출판·1만1000원>



▲서로 달라서 더 아름다운 세상=남녀 차별, 다문화 가족 문제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열 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오빠만 좋아하는 할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미주, 베트남 출신 엄마를 둔 대우 등을 통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뼈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권의 문제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뤘다. <휴이네·9500원>



▲혼자 탈 수 있어요=‘네버랜드 마음이 자라는 성장 그림책’ 16번째 권. 어린 토피가 자연계를 배우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일별로 상세하게 묘사했고, 점차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이 잘 표현됐다. 작가 특유의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글과 그림은 토피의 감정 변화까지 섬세하게 보여준다. <시공주니어·7000원>



▲동생이 태어날 거야=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존 버닝햄·헬렌 부부의 신작이다. 엄마와 아이가 태어날 동생에 대해 이런저런 기대와 상상을 하며 나누는 대화를 담았다. 아이는 동생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론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아이의 설렘과 질투심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웅진주니어·1만1000원>



▲다롱이의 꿈=2006년 제4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시인상’을 수상한 이옥근 시인의 첫 동시집이다. 소소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웃 사람들의 아름답고 순수한 이야기를 담은 동시 33편을 실었다. 이씨는 현재 여주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다. <푸른책들·8500원>



▲100원이 작다?=‘창비 호기심 그림책’ 시리즈의 첫 번째 권. 준선이의 방을 무대로 책상 위 10원, 장물 밑 100원, 서랍 속 1000원 등 여러 단위의 돈이 하나둘 깨어나면서 시달려버린 하룻밤 소동이 펼쳐지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가치 수단·교환 수단·저장 수단’이라는 돈의 쓰임새를 알려준다. <창비어린이·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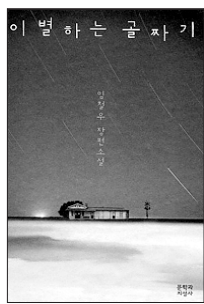
▲굶주림에 한 마리=초등학교 급식실을 배경으로 다양한 가정의 아이들의 식습관 문제를 다룬 창작동화다. 밥을 잘 먹지 못해 저체중인 아이, 가정환경 때문에 집에서 잘 먹지 못하고 학교 급식을 통해 영양 보충을 하는 아이 등... 독특한 발상과 캐릭터를 통해 익살스럽게 풀어놓았다. <그린북·9000원>



▲독도박물관 이야기=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책. 올림도의 독도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내용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독도 관련 지도나 문서, 사진 자료 등도 풍부하게 실었다. <리젤·1만1000원>

이별하는 골짜기

임철우 지음



‘그 섬에 가고 싶다’로 알려진 완도출신 작가 임철우(56·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씨가 장편 소설 ‘이별하는 골짜기’를 펴냈다. 이번 소설은 작가가 ‘강물 편지’라는 제목으로 2006년 ‘문학사

상’에 연재한 것을 3년여간 다듬어 선보이는 작품이다. 5·18 등 한국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쟁과 분단,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에 대해 진진하게 접근해온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룬다. 소설은 ‘이별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지닌 초라한 산골역이자 사라져가는 간이역인 별어곡역(別於谷驛)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기가 옴니버스 영화처럼 펼쳐진다.

소설은 네 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첫 편인 ‘별어곡 시인’은 별어곡역의 시인이자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온 별어곡역 막내 역무원 정동수를, 두 번째 이야기 ‘이별의 골짜기’는 자신의 실수로 열차에 치어 죽은 남자의 아내와 결혼해 결국 상처만 떠안은 늙은 역무원 신태목을, 세 번째 ‘귀로’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순례 할머니를, 네 번째 이야기 ‘손가락’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에 시달리는 제과점 여자를 각각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들은 하나같이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내밀한 아픔과 상처를 불안과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역시 간이역을 무대로 삼은 작가의 초기 단편 ‘사평역’을 떠오르게도 한다.

소설은 연작 형식으로 네 인물이 주인공이지만, 세 번째 이야기 ‘귀로’에 특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열여섯의 나이에 방직공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할머니가 해방 후에도 남북 분단이 가져온 이데올로기 문제로 가족마저 모두 잃고 조카의 수발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내용이다. 생생하게 묘사된 순례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삶은 여전히 우리민족의 아픔으로 남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작가는 “이번 작품은 특히 애정이 있어 손보는 데 오래 걸렸다”며 “예전 작품은 가슴 속 응어리를 토해내는 분노와 긴박감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가라앉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응시하면서 썼다”고 밝혔다.

또한 “예전에는 수십 년간 벌어질 변화가 요즘 우리 삶에 한 달 만에 벌어지곤 한다”며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역이 폐기처분되는 모습이 우리 삶과 닮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1967년 1월부터 승객을 받아온 실제 별어곡역사(강원도 정선 소재)는 2005년 무인 간이역으로 격하되면서 방치되다 지난해 8월 리모델링을 통해 민통선역사 전시관으로 바뀌었다.

한편, 소설에는 초고에 없었던 나비가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희망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보인다.

작가는 “소설 속의 상황들이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라 한줄기 빛 같은 것을 부여하고 싶었다”며 “그것을 나비로 상징화했다”고 설명했다.

198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개도둑’이 당선돼 등단한 임씨는 ‘그리운 남쪽’ ‘붉은산, 흰새’ ‘별날’ ‘백년여관’ 등을 발표했으며 이상문학상, 단재상, 요산문학상을 받았다.

<문학과 지성사·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임철우

장정일의 여덟번째 ‘독서일기’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장정일 지음



소설가 장정일과 뿔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독서일기’다. 60세가 될 때까지 20여권이 넘는 ‘독서 일기’를 펴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장정일은 1997년 ‘장정일의 독서일기 1’을 출간한 후 지금까지 7권의 독서 일기를 내놓았다.

그가 여덟번째 독서 일기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을 펴냈다. 이전의 독서일기가 날짜 순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이번 독서일기는 책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묶었다.

독서일기에 등장하는 책은 모두 84권이다. 예전보다 문학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선거는 민주적인가’, ‘저항의 인문학’,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등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책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100만부 넘게 팔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그의 신랄한 독설을 피해 가지 못했으며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더 리더’, ‘88만원 세대’, ‘신화는 없다’ ‘삼성을 생각한다’ 등 베스트셀러도 소개했다.

저자는 자신의 독서일기를 읽은 독자가 ‘아, 이런 책도 있었어?’, ‘나도 이 책 한번 읽어봐야지’하고 서점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일기’의 소임을 다하는 거라고 밝혔다. 그는 그 역할을 성공한 듯하다. <메디·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경제 아닌 인문학적 ‘市場’고찰

시장의 신화 1, 2

이용범 지음



소설 ‘열을꽃’ ‘열한 번째 사파나무’와 교양서 ‘인생의 참스승 선비’ 등을 쓴 작가 이용범씨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분석한 ‘시장의 신화 1, 2’를 출간했다.

전작 ‘인간 딜레마’가 인간의 마음을 인문학을 통해 살펴본다면 이번 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고민을 풀어본 것이다.

저자는 시장자유주의라는 신격화된 권력의 틀 속에서 자율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의와 윤리의 문제를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시장’이라는 담론의 모든 것을 면밀하고 농도 짙게 담아냈다.

책은 시장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학문적인 차원에서 경제학을 다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논하면서 ‘삶의 장으로서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우화집에 가깝게 읽힌다.

저자는 오늘날 시장을 이해하는 보수와 진보의 엄연한 다른 두 시각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보수 대신 ‘시장원리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한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시장질서주의’라는 명칭으로 서술해 나간다.

저자는 이 두 이념의 가운데서 ‘사람’을 보라고 주장한다. 극단적 대립을 그치고, 보수화되고 권력화된 시장원리를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생각의 나무·각권 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사 31인 ‘희대의 스캔들’

스캔들의 심리학

에드 라이트 지음



남편 표트르 3세의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갖은 거짓말로 사기행각을 벌인 세기의 사기꾼 테레즈 워베르, 섹스 스캔들로 미국을 발각 뒤집어놓았던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호주의 문학평론가 에드 라이트가 쓴 ‘스캔들의 심리학’은 대통령, 예술인, 여만장자에 이르기까지 명사 31명이 희대의 스캔들에 휘말려 파멸하는 과정과 그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추적했다.

저자는 “인간의 여러 욕망(분노, 시기, 탐욕, 정욕, 교만) 중 일부가 얽히고설켜 만든 결과가 ‘스캔들’”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그 많은 동기 가운데 섹스는 타락을 유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욕망에 속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스캔들의 원인이 그들의 심리 속에 있다고 설명한다.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들은 아주 복잡하고 기묘한 방식으로 제도를 기만하려 들고 그들은 모든 것이 있지만 또 모든 것이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와 속박 사이에서 그들은 자연스레 일탈을 꿈꾸게 된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또 “유명한 사람일수록 욕망에 어이없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결국 ‘스캔들’은 불온한 욕망에 항상 굴복하고 마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에버리칭하우스·2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MBC 문화탐방
영업보충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삼국지 중원의 땅 중국의 古都 하남성으로...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찬란한 문화유산의 총 집합체

10월 9일~11월 6일 (매주 수, 토) 단,9회 한정

무안 ✕ 소림사 직항 전세기

구분	상품명	요일	출발날짜	상품가(원)
관광	소림사 / 운대산(용문석굴) 4일	수	10/13, 20, 27 11/3일	699,000
	소림사 / 태항산(용문석굴) 4일			799,000
	소림사 / 서안진시항행마용(용문석굴) 4일			859,000
	소림사 / 운대산 / 개봉포청천(용문석굴) 5일	토	10/9, 16, 23, 30 11/6일	749,000
	소림사 / 서안진시항행마용 / 양귀비의 화청지(용문석굴) 5일			899,000
트레킹	태항산, 운대산 중주 트레킹 5일	토	10/9, 16, 23, 30 11/6일	899,000

* 어린이는 성인요금과 동일합니다.

광주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국정부인가조건)

○ 랜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2-10